

# 서울샘터 교회 주보

2019년 9월 29일

교회력(다해), 전체 44주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창조절 다섯째 주일**

☞ 오늘의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딤후 6:12).



지금은 코스모스의 계절이다. 저런 색깔과 모양을 빚어내는 지구가 신비롭다. 눈이 부시다. 코스모스만이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은 각각 신비의 극치다. 저 한 송이 코스모스 꽃을 피우기 위해서 지구 전체가 힘을 보탰으니 말이다.  
(2019년 9월26일 찍음, 원당에서)

## 개 회 예 전

예배의 부름 ... 목사

겉으로만 보면 우리의 삶은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깊이에서 보면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매 순간이 새롭습니다. 그런 매 순간이 모여서 한평생의 삶이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찬송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1,2,4절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영광 앞에서 신을 벗었던 모세처럼, 당신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한탄한 이사야처럼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열정을 내려놓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식과 판단이 아무리 깊어진다고 한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한 찰나에 불과한 삶에 갇혀 있는 우리가 우주 전체의 시간과 공간만이 아니라 그 너머까지 고유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어찌 다 경험하고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초월하시며, 동시에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과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고, 세상 마지막 때 생명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찬송 새로운 예배찬송 47장(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 다 함께



예 배 처 소  
공 동 예 배  
간 식 / 친 교  
교 우 모 임  
목 사  
홈 페 이 지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대방동) 여성플라자  
4:00~5:00  
5:00~5:20  
5:20~6:20  
정용섭 (010-8577-1227, 053-856-1227), 박재진, 이춘우  
<http://dabia.net/xe/churchs>

이번주는  
4층 아트컬리지 4실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실제로 유익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어린아이처럼 세상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구하기만 합니다. 영적인 만족을 제공하지 못하는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쫓기듯이 살아가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쏟아낸 말들이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덧나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로 인해서 시험에 들린 사람들은 없었는지, 부끄럽습니다.

**회중: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목사: 세상을 대신하여 용서의 기도를 바칩니다. 세상 곳곳에서 폭력과 증오와 미움과 위선과 교만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첨단 문명의 세상에서도 삶의 무늬만 달라질 뿐이지 내용은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점점 더 빈곤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침묵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 함께**

**\*사죄선포 ... 목사**

목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9).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 말씀과 교회 전통에 따라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뢴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에서 ... 다 함께**

감격하여 이강민

영 - 광 을 주 님 께 영 - 광 을 주 님 께

높 이 계 신 주 님 께 영 광 -

**\*평화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 국악찬송 45장 (주는 나의 목자시니) ... 다 함께**

박화목

이건용

♩ = 96

1. 주 는 나 의 목 자 시 니 부 족 함 이 무 언 가  
2. 내 가 굶 주 려 을 때 나 부 영 혼 목 이 마 를 때

주는 나 의 목 자 부 족 함 이 무 언 가  
내가 굶 주 려 을 때 부 영 혼 목 이 마 를 때

비 록 험 한 길 이 라 도 두 렵 없 이 가 겠 네  
한 량 없 는 사 랑 으 로 나 를 보 살 피 주 시 네

저 원 푸 른 풀 밭 과 맑 은 시 냇 물 가 로 도  
수 의 악 한 손 나 를 치 려 할 때

나 를 인 도 하 시 는 주 는 나 의 참 목 자  
굳 게 지 켜 주 시 는 주 는 나 의 참 목 자

나의 참 목 자

## 말 씬 예 전

### 설교전기도 ... 다 함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혼란하게 하는 악한 영을 물리쳐주시고 진리의 영이  
신 성령을 가득히 채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제1독서 예레미야 32: 6-15 ... 이유선 집사

### 성서교독 시편 91: 1-6, 14-16(새로운 예배시편 번역) ... 다 함께

지존하신 하나님이 계신곳에 몸을담고 전능자의 그늘아래 몸을피한 사람들이아  
-우리주님 요새이며 무한평안 피난처요 의지하고 따라야할 하나님이 되신다네  
사냥하는 자의뒹과 죽어야할 질병에서 우리주님 정녕너를 건져주실 것이로다  
-주님께서 날개품에 너를안아 지키시고 그의품에 안기도록 너를숨겨 주시리라  
우리주의 진실하심 너를지켜 주시겠고 너의방패 너의성벽 되어주실 것이로다  
-그러므로 밤의공포 두려워할 필요없고 날아드는 낮의화살 무서워할 필요없다  
흑암권세 몰래틈타 확산되는 전염병과 백주대낮 재앙에도 걱정할것 없으리라  
-주를향해 부르짖는 너를주가 건져주며 주의이름 아는자를 주가높여 주리로다  
네가주를 부를때에 주가응답 할것이며 네가고난 받을때에 주가함께 하시리라  
-그가너를 건져주고 영화롭게 할것이며 주가너를 마음편히 안식하며 살게하니  
-주의구원 네앞에서 밝히드러 나리로다

### 제2독서 디모데전서 6: 6-16 ... 이유선 집사

### \*제3독서 누가복음 16: 19-31 ... 이유선 집사

### \*응답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의 '알렐루야' ... 다 함께



### 설교 투쟁적인 믿음 ... 이춘우 목사

### 설교후기도 ... 설교자

### 찬송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1,3절 ... 다 함께

## 봉 헌 과 친 교 예 전

###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  
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  
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헌금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1절 ... 다 함께

### 중보기도 ... 목사

### 주기도 ... 다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  
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알림 ... 목사

## 파 송 예 전

### \*마침찬송 639장 (주 함께하소서) ... 다 함께

###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창조절 다섯째 주일 공동예배가 끝났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서  
기쁜 일도 만나고 언짢은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도 만  
나고 마음 불편한 사람도 만나게 될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최선을 다하  
십시오.

### \*축복기도 ... 목사

### \*후주 ... 반주자

## [알리는 말씀]

\* 예배 후에 반별 공부모임이 있습니다.

- 그리스도교 사상사: 박재진 목사
- 과학과 신앙: 김용성 집사
- 기도와 교제: 오미영 집사
- 청소년 반: 김재남 집사

\* 서울여성플라자 대관 사정이 원활하지 않아 장소 변경이 빈번하니 이 점 양해하시고  
항상 예배 장소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일 헌금** 725,000원 (주일헌금: 425,000원, 통장헌금: 300,000원)  
(2019/9/22) 헌금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252-788537 이기령

## 9,10월 예배준비

		예배일	예배 인도	성경봉독	헌금 / 안내
창조절 5주	9/29	4층 아트컬리지 4실	이춘우	이유선	윤혜정
창조절 6주	10/6	4층 아트컬리지 4실	박재진	신창식	오미영
창조절 7주	10/13	2층 세미나 1실	정용섭	채진진	이기령
창조절 8주	10/20	4층 아트컬리지 4실	이춘우	고중홍	양혜선
창조절 9주	10/27	2층 세미나 1실	박재진	윤동희	박수진

## 9월 22일 설교 “양자택일” 발췌

###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가 죽는다는 게 명백한 사실이지만 늘 죽음만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이 이미 극복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우리의 생각이 죽음에 머물러 있으면 곤란합니다. 죽음은 훨씬 큰 힘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큰 힘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경험이야말로 절체절명의 사건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세상살이가 끝나는 사건이지만 하나님 경험은 그 죽음을 넘어서 절대적인 생명에 이르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경험이야말로 절체절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나라 경험, 즉 하나님 경험이 절체절명일까요?

조금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 경험이란 우리가 별거벗는 상황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단정한 옷을 입고, 머리도 손질하고, 여성은 화장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선생이나 의사나 목사, 검사나 변호사, 또는 자영업자 등등의 직함을 내세웁니다. 한평생 우리는 뭔가를 뒤집어쓰고 삽니다. 일종의 가면입니다. 그 가면을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갈수록 가면은 더 단단해집니다. 옷과 지위와 재력이 그 사람 자체는 아닙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인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식과 부모 관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인 차원에서 보면 가족관계도 가면입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의 가면입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질이나 정체성은 남편, 아내, 친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사실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가면을 벗는 일입니다. 처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던 순간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피조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누가 잘나고 못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연봉 1억 원을 받는 사람과 2천만 원을 받는 사람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차이를 절대적이라고 말하겠지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알지 못하기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런 차이는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온 것처럼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이런 궁극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 때만 그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표현만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 표현이 기독교 신앙에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표현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표현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여러 가지 관계와 조건에서 벗어납니다. 예를 들어 여객선이 침몰했다고 합시다. 그중에서 일부가 구조되었습니다. 구조된 그 순간에 그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영혼이 충만해집니다. 교회에서도 공연한 일로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별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경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저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극히 작은 일에 마음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에 온전히 제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알고 있으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양자택일’입니다. 생각으로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세상에서도 잘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사는 기독교인들이 있긴 합니다. 부자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가능한 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표면적으로는 그게 가능하지만, 영혼의 깊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비유적으로, 클래식 음악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철학 책 읽기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무엇이 재물을 섬기는 일인지는 여러분 자신이 판단해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판단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해보십시오.